

출혈성증후군(Hemorrhagic Syndrome)

원 송 대

<한국 카길 기술지도부>

증후군(症候群)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출혈성 증후군이란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지방성 골수(Fatty bone marrow)로 인한 형성부전성 빈혈(Aplastic anemia)을 일으켜 혈액응고의 지연 및 출혈현상으로 닭을 폐사에 이르게 한다.

원 인

- 1) 설파제의 약을 잘못 투약할 경우
- 2) 곰팡이독(myotoxicosis)이 체내 흡수될 경우
- 3) 3연화에치렌을 추출한 콩기름 급여시
- 4) 비타민 K가 사료에 부족시
- 5) 조혈기능을 방해하는 약제를 장기 투여시(크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)

증 상

출혈성 증후군은 주로 육성기간중에 있는 5~9주령 닭에서 잘 발생되고 이로 인한 폐사율은 평균 5~10%가량 된다.

닭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닭털이 일어나며 험없이 모여 있다. 간혹 초기에 설사를 하면서 뒹뚱도 보인다. 눈을 자세히 보면 안구 전방에 핏점이 보인다.

해 부 증 상

해부해 보면 산발적인 출혈점을 가슴과 다리근육에서 볼 수 있다.

점상출혈은 선위와 사낭사이에 보이는 때 이런 경우는 뉴캐슬병에서도 볼 수 있다.

소장에 출혈점이 보이고 맹장에 피가 엉켜 있는 수도 있다.

이런 현상은 콕시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콕시듐의 장은 내벽이 비후하고 지방성 골수병변은 볼 수 없다.

골수는 조혈기능(Hemopoiesis)을 하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 그림과 같이 퇴색된다.

출혈점은 간, 비장, 신장등에서도 볼 수 있다.

간은 빈혈로 노랗게 퇴색되었으며 백혈구 감소(Leucopenia)로 인한 세균침입으로 잠균이 분리될 수도 있다.

예 방 대 책

이에 대한 치료대책은 없다. 다만 대증요법으로서 비타민 K와 B, 그리고 미량원소를 요역가로 투여하여 조혈기능을 돕는 것이 좋다

- 1) 사료통에서나, 바닥에 떨어진 부패된 사료를 닭이 먹지 못하게 한다.
- 2) 깔짚에 곰팡이의 독이 번식못하도록 깔짚의 건조를 유의한다.
- 3) 설파제투여시 농도와 투여기간을 엄수한다.
- 4) 조혈기능을 해치는 항생제의 경구투여를 장기간 해서는 안된다.
- 5) 농약살포시 계사창문을 닫을 것. □□

